

# 부산지역에서 구조된 야생조류 분변 유래 살모넬라균의 혈청형에 대한 연구

## I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살모넬라균은 거의 모든 동물과 사람에서 분리됨
- 야생조류에서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무증상이거나 특이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음
-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로 야생조류의 서식지가 도시화 되어 인간과의 접촉 가능성이 늘어남
-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인수공통질병으로서 야생조류에 의하여 사람이 감염될 잠재적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야생조류 분변으로부터 살모넬라균을 분리·동정하고자 함

## II 연구개요

- 기 간 : 2022.1.1.~2023.12.31.
- 대 상 : 부산지역 야생철새 및 텃새의 분변 467건
- 항 목 : 미생물 배지에서 분리된 균을 MALDI-TOF mass spectrometry 동정한 후 혈청형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

## III 연구결과

- 467건 중 9건(1.9%)에서 살모넬라균 검출됨. 혈청형 B군(78%), C군(22%)
- *Salmonella* Typhimurium (44.4%), *Salmonella* Saintpaul, *Salmonella* I,4,[5],12:i,  
*Salmonella* Agona, *Salmonella* Bareilly, *Salmonella* Infantis가 각 1건(11.1%)씩 검출됨
- 여름 철새(56%), 텃새(33%)에서 5월~9월 사이 (20°C 이상)에 검출되고 겨울 철새에서 11% 검출
- 항생제 감수성검사서 Cefalexin, Cefalotin, Amikacin, Gentamicin에 9건 모두 저항성 나타남
- 감염 개체 모두 무증상 감염으로 최근 사람들에게서 분리되는 혈청형과 검출 시기가 비슷함

## IV 정책연계방안

- 부산지역 야생조류의 세균 감염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- 인수공통질병으로서의 살모넬라 감염증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야생조류와 직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길고양이나 반려동물의 감염 가능성을 재고하여 정책에 활용

## V 활용계획

- 부산은 대표적 철새도래지로 AI 유행 시기에 방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
- 세균성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질병 전파 차단 방법 및 그에 따른 적절한 방역 대책 수립 기대